

해방직후 북한 의학교육의 형성: 1945~1948

허윤정*·조영수**

1. 머리말
2. 지방행정조직과 자치적 의학교육의 전개
3. 중앙주권기관의 교육행정과 의학교육의 재편
4. 의학교육체계의 정립
5. 맺음말

1. 머리말

해방 후 조선은 독립 국가를 세우지 못 하고 남북으로 갈라졌다. 의료체제도 서로 달라서 북에는 사회주의 국가의료체계, 남에는 미국식 의료체계가 들어섰다. 의사 수는 남한 3,381명, 북한 1,000여명으로 격차가 컸다(박운재·신규환, 2012: 304-5). 북한의 의사 수는 훨씬 더 적게 보고되기도 하였다.¹⁾

신규 인력의 양성에 있어서는 사정이 정반대였다. 남한에서 ‘국대안(國大案) 파동’²⁾으로 의학교육이 파행을 겪을 때 북한은 ‘민주주의 사상과 선진 의

* 교신저자: 허윤정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연구소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443-380
전화 : 031-219-5089 / 이메일: yunjungheo@naver.com

** 백상치과의원

1) ‘광복 이후 3년 만에 걸쳐 북한에 있던 1천 명의 의사 중 70%가 남한으로 내려와 북한에는 의사 300명만이 남았다고(최제창, 1996: 228) 개인병원과 개인의사를 합치더라도 의사 수는 몇 백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김일성, 1979b: 106).

2) 1946년 4월 미군정의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전 통합 방침과 6월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 발표 이후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인 동맹휴학으로 확산되어 학생 4,956명이 제적되고 교수 380여 명이 해임되었으며 1947년 5월 이후 수습되었다.

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한 의료일군³⁾ 양성'에 열심이었다(김일성, 1979e: 185).

북한은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의학대학, 의학전문학교, 의학강습소, 간호학교 등을 신설했다. 그 결과 1945년 2개 의학전문학교에 학생 80명, 5개 간호학교에 학생 150명이었는데, 1947년 4개 의학대학에 학생 1,234명, 11개 의학전문학교에 학생 1,296명, 25개 간호학교에 학생 95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44개 교육기관, 학생 수 3,680명으로 증가한 것이었다(박윤재, 2012: 390-1).

1960년에 인구 대비 북한의 의사 수는 남한의 두 배 이상이었고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졌다.⁴⁾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 고려의학 등을 특징으로 하는 독자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였다(이성봉, 2009: 326). 북한 보건의료의 특성은 이미 해방직후에 그 '원형'이 나타나고 있었다(황상익·김수연, 2007: 37). 본 연구는 북한 의학교육의 원형이 해방직후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주목하였다.

북한의 의학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북한 보건의료의 한 부분으로서 의학교육을 다루고 있다(문옥륜, 2001; 황상익·김수연, 2007; 이성봉, 2009;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2013). 북한의 의학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을 다룬 한 연구도 보건의료와 의학교육을 동일한 맥락에서 다루었다(박재형·김옥주·황상익, 2003).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학교육이 보건의료와 밀접한 관계임은 당연한 것이지만, 의학교육은 '교육'의 영역에 속한다. 이는 국가의 행정체계에서 의학교육이 보건행정과 교육행정 중 어느 쪽이 소관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⁵⁾ 북한의 의학교육제도 전반을 상세하게 고찰한 연구에서 박윤재·박형우(1998)는 중요한 논점을 제시하였다.

3) '일꾼'의 북한말

4) 인구 만 명 당 의사 수는 1960년에 북한이 11명으로 남한 4.8명의 2.2배였고, 1970년에는 북한이 33명으로 남한 6.3명의 5.2배였다(이성봉, 2009: 342).

5) 현재 남한에서 의과대학은 교육부 소관이다. 단, 인력 수급에 관련되는 입학정원의 조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조회하여 반영한다.

해방 직후 북한에서는 의학교육의 주체가 보건국이나 교육국이나
를 두고 혼란이 있었으나, 결국 교육국이 맡게 되었고...(박윤재·
박형우, 1998: 64).

즉, 해방 후 북한에서 의학교육은 교육행정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북한 의
학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보건국과 보건행정에 대해 논하였을 뿐 교
육국·교육행정에 대해 언급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해방직후 북한
의학교육의 주체가 교육국으로 결정되는 과정과 그 의미에 주목하였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서 의학교육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중요한 논점이 된
다. 북한 의학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5도행정국, 북조선임시인민위
원회 등 ‘중앙주권기관 시기의 의학교육’ 부터 다루고 있다. 평양을 중심으로
의학교육기관의 교원과 졸업생들의 이력과 삶의 궤적을 탐구한 박형우(2002)
의 연구는, 해방 2-3일 후 평양의학전문학교(이하 평양의전)의 상황에서부터
주목한 점에서 예외적이다. 본 연구는 해방직후 함흥과 청진 등에서 자치적
차원의 의학교육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중앙주권기관 수립 후 교육행정의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지방 차원의 의학교육이 어떻게 재편되고 또 체계화되
었는지 그 과정과 의미에 주목하였다.

이상의 두 논점 - ‘중앙화’와 ‘체계화’를 중심으로 해방직후 북한 의학교육의
형성과정을 탐구함으로써 본 연구가 북한 의학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
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된 자료로는 북한 의학교육 관련 정기간
행물 및 노획북한문서(RG 242) 중 교원이력서를 참조하였다.⁶⁾

2. 지방행정조직과 자치적 의학교육의 전개

해방 후 북한 각 지역에서는 자치조직이 결성되어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

6) 한국전쟁 당시 노획되어 현재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노획북한문서
(Captured Korean Documents, Record Group 242)’ 중 김일성대학, 평양의학대학, 함흥의
과대학, 청진교원대학, 청진의과대학 교원이력서를 분석하였다.

였다. 자치조직의 성격은 항일운동의 좌우익 세력관계에 따라 달라서 평안도는 기독교 중심의 민족운동이, 함경도는 좌익이 우세하였다.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하는 평양과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함흥은 북한의 두 중심이었다(김주환, 1989: 256-7). 평양과 함흥은 북한 의학교육의 두 중심이기도 하였다. 해방 당시 북한에 의학교육기관은 평양의전과 함흥의학전문학교(이하 함흥의전) 뿐이었다.⁷⁾ 해방 당시 두 학교의 조선인 재학생은 80명이었다(박윤재, 2012: 390).

1) 함흥

함흥에는 8월 16일 형무소에서 석방된 정치수들을 중심으로 하는 함경남도공산주의자협의회와 좌익민족주의자 도용호(都容浩)와 최명학(崔明鶴)⁸⁾이 주도하는 함경남도건국준비위원회(이하 함남건준)가 조직되었다. 두 조직은 조선민족함경남도집행위원회(이하 함남집행위)를 결성하고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Chischakov) 대장으로부터 행정권을 넘겨받았다. 함남집행위의 구성은 위원장 도용호, 부위원장 겸 보건국장 최명학, 교육국장 문석구(文錫九), 재무국장 이봉수(李鳳洙)⁹⁾ 등이었으며, 9월 1일 함남인민위원회로 개명하였다(김용복, 1989: 205-9).¹⁰⁾ 교원 경력 17년의 양인성(楊仁性)¹¹⁾이 교

7) 평양의전 졸업생 중 조선인은 309명, 그 중에 북한 출신은 114명이었다(기창덕, 1993: 275). 함흥의전은 1944년에 개교하였다(총독부관보 6155호, 1944.4.13).

8) 최명학은 1898년 함남 함흥 출신으로 영생중학을 졸업하고 제혜의원 제약사로 근무 중 3·1 만세운동으로 10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1926년 세브란스의전 졸업 후 해부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 1936년 사임하고 함흥에 개업하였다(박형우·여인석, 2007).

9) 이봉수는 1902년 함남 흥원 출신으로 명치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3·1운동 관련 상해로 망명하였다가 귀국 후 동아일보 경제부장을 역임하고 사회운동으로 투옥되었다. 그는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재정국장을 역임한다.

10) 좌우익이 대립했던 평안도와 달리 좌익이 주도한 함경도는 자치조직 결성이 빠르고 운영이 원활했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추후 의학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11) 양인성은 1901년 함남 함주 출신으로 동경고등사범 박물과와 동경 문리과대학 생물학과를 나왔다. 1929년 이후 선천 신성중학, 개성 호수돈여중, 함흥 영생중학교 및 영생여자중학교, 함남중학 교원 및 교무주임으로 재직하였다. 함흥고보생들이 조직한 비밀결사 동광사(東光社) 사건으로 피검되었다가 병보석으로 요양 중 해방을 맞았다.

육국 교육부장에 임명되었다. 함흥의전의 인수와 관리는 교육국과 보건국이 공조할 사안이었다. 10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려면 병리학과 해부학 강의를 맡아 줄 교원을 충원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양인성은 복부동(福富洞) 동제병원 원장 전중휘(全鍾暉)¹²⁾를 찾아갔다.

전중휘는 함흥의전이 개학을 하게 되면서 도(道) 인민위원회 교육부장의 요청으로 병리학 전담 교수가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맡겠다는 조건을 걸고, 당시 최고 학년이던 2학년의 병리학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때 그는 당시의 사회 정세에 대한 불안과 상관없이 학생들에게만큼은 멋있는 강의를 해 보려고 노력했다(김택중, 2012: 133).¹³⁾

보건국장 최명학은 1936년까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이하 세의전) 해부학교실 주임 교수였다. 그는 교토(京都)제국대학 의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뛰어난 실력과 명망가로 유명한, ‘세계적 수준에 손색이 없는’ 해부학자였다(박형우·여인석, 2007: 89). 10년간 개업했던 병원을 정리한 그는 유능한 교원을 영입하는 등 함흥의전 개교를 주도하였다. 함흥의전(교장 최명학)은 9월 15일 개교하였다.

2) 평양

8월 17일, 민족진영 주도로 평남건국준비위원회(이하 평남건준)가 구성되었다.¹⁴⁾ 교육부장 홍기주(洪箕疇)¹⁵⁾는 각 학교 인수를 준비하였으며(김용복,

12) 전중휘는 1913년 함북 성진 출신으로 보신학교와 영신보통학교, 영생고보와 보성고보를 거쳐 35년 경의전 수석 졸업 후 경성제대 의학부에서 병리학을 연구하면서 경성여의전 교수를 역임하였고 경성부립병원을 거쳐 1942년 함흥에 개업하였다.

13) 전중휘는 스승 백인제와 동창들의 중용으로 1946년 3월 월남하여 경성의과대학(옛 경성의전) 교수가 된다(김택중, 2012: 133-4). 한편 함흥의전에는 노병조(盧炳琚, 1916~?)가 병리 및 약리학을 강의하였다, 그 역시 나중에 월남하여 가톨릭의대 병리학 교수, 강원도립중앙보건소장을 거쳐 소아과를 개업하였다(『동아일보』, 1961년 4월 21일).

14) 위원장 조만식, 부위원장 오윤선 이하 교육부 등 8개 部를 두었고 무임소위원으로 의사 김병서와 김동원이 있었다(김용복, 1989: 203).

15) 홍기주는 감리교 목사로 1946년 초 평남인민위원회 위원장, 1947년 북조선인민위원회 부위원장,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다.

1989: 203), 18일에는 장기려(張起呂)¹⁶⁾가 위생과장으로 위촉되었다(지강유철, 2007: 180). 한편, 현준혁, 박정애 등이 결성한 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는 평남건준에 비해 세력이 약했으나 소련군 진주 후 8월 26일 치스차코프 대장에 의해 두 조직이 동일한 비중으로 통합, 평남인민정치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보건위원 김병서(金秉瑞)¹⁷⁾는 건준 측이었고 교육위원 장종식(張鐘植)¹⁸⁾은 공산 측이었다. 위원회는 ‘사실상 북한의 중앙정권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되었는데,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대한 좌우대립과 민족진영 위원들의 월남 등으로 좌익 일색이 되었다(김용복, 1989: 211). 평양의전은 이미 동창회에서 접수·관리하고 있었으나 운영이 순탄치 않아 인민정치위원회가 주도하게 되었다.

해방이 되고 2~3일이 지나자 최창석(8회)¹⁹⁾과 최중석(9회), 그리고 박근모(9회)가 적위대(赤衛隊)란 붉은 완장을 두르고 나타나... 학교와 병원을 인수하였다... 학교는 병리학의 신영서(11회)가 임시로 책임을 맡았다...그러나 해방 직후의 혼란과 소요 속에 명령계통이 서지 않고 저마다 왕이요 권위자였기에 회의만 거듭할 뿐이었다. 결국 여러 동창들의 논의 끝에 1945년 10월 정두현을 학장(겸 생리학 담당)으로, 장기려를 원장 겸 외과책임자로 영입하였다(박형우, 2002: 67-8).

정두현(鄭斗鉉)²⁰⁾은 평양의 광성, 승덕, 승인학교에서 교사와 교장을 역임

16) 장기려(1911-1995)는 평북 용천 출신으로 1932년 경성의전을 졸업하고 외과학 교실을 거쳐 1940년 이후 평양연합기독병원 외과에 근무하고 있었다.

17) 김병서는 1897년생으로 1921년 아이치(愛知)의대를 졸업하고 선천 미동병원 내과 주임을 거쳐 평양 종로에 병원을 신축 개업하였다(『동아일보』, 1922년 6월 22일).

18) 장종식은 1906년 제주 출신으로 경성에서 중학을 마친 후 소학교 교원과 기자(1923~27), 1929년 제주학우회 활동, 金成淑이 세운 辛酉義塾 교사, 1931년 조선일보 제주지국장을 거쳐, 1933년 濟州革友同盟사건으로 3년 수형 후 1937년 평양으로 이주하였다.

19) 최창석(崔昌錫, 1916-1998)은 평양 부농가 출신으로 광성중학과 평양의전을 나와 45년 9월 평남인민정치위 보건위원, 47년 북조선인민위 보건국 의무부장, 48년 보건성 의무국장, 1954년 보건성 副相, 1966년 함흥의과대학 학장을 역임하였다.

20) 정두현은 1888년 평양 출신으로 1914년 동경제대를 졸업하고 승덕학교 교장 재직 중 3·1 만세운동과 해외독립운동으로 3개월 복역하였고, 1930년 동북제대 수료 후 숭실전문학교

한 바 있는 ‘매우 존경받는 교육자’였다(김기식, 2006: 56). 평남인민정치위원회는 그를 평양의전 교장으로 초빙하였고,²¹⁾ 장기려를 ‘평남 제1인민병원(前도립병원) 원장 겸 외과과장으로 임명’하였다(지강유철, 2007: 181). 평양의전(교장 정두현)은 10월 1일 개교하였다.

3) 청진

8월 13일 나진을 점령한 소련군은 관동군과 치열한 시가전 끝에 16일에 청진에 진주했다. 함경북도는 유일한 전투지역이어서 행정기구 구성이나 행정권 인계가 늦어 함북인민위원회는 9월 말에야 청진에서 결성되었다. 초대 위원장은 나진의 실업가 이창인(李昌仁)였으나 10월에 박두환(朴斗煥)²²⁾으로 교체되었다. 포항동의 아세아병원 원장 양진홍(梁珍鴻)²³⁾은 당시의 시가전 상황과 청진 의사들의 구호활동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다.

1945년 8월 13일 새벽, 주택과 병원을 내버리고 피난하였다...8월 21일에 돌아와 보니 집은 엉망진창이 되고 병원의 모든 물품은 하나도 없이 도적맞았다. 그러나...우리나라가 뜻밖에 해방 독립된다고 하니 이것이 기쁘다...

8월 27일 청진 의사 15명이 모여 새로 의사회를 조직하고 우선 이재민 구호사업을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구(舊) 간이진료소에서 협력적으로 근무하다가 사령부 지시에 의하여 각자 개업하면서 2개월간 무료진료를 시행하였다(양진홍, 청진의과대학 교원이력서, 1948).

생물학 교원 및 교장으로 재직했으며 학교가 폐교되자 1941년 台北帝大 의학부를 수료하고 경성제대에서 생리학을 연구하였다.

- 21) ‘인민위원회 초청에 응하여 다시 교육계로 진출하게 되어 평양의학전문학교 교장으로 취임 하였다’(정두현, 평양의학대학 교원이력서, 1948).
- 22) 박두환은 1884년 함북 출신으로 1911년 측량학교를 나와 소련에 거주, 3·1운동으로 3년간 투옥되었고 간도공산당에 가입했다. 1946년 10월 청진교원대학 학장이 된다.
- 23) 양진홍은 1897년 함남 이원 출신으로 영생중학과 경성의전 졸업 후 성진제동병원에 재직하였다. 1923년 철혈광복단 군자금 사건으로 함흥형무소 수감, 동경제대 전염병연구소 연수, 함춘의원 개업을 거쳐 1931~33년 독일 Frieberg대학 외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34년 중화민국 목단강시에 국제병원을 개업하였다.

이재민 구호진료소는 1945년 말까지 운영했으며, 성주영(成周英)²⁴⁾이 청진의학회가 되었다. 그는 박동호(朴東浩)²⁵⁾, 서창제(徐昌濟)²⁶⁾ 등과 더불어 10월 1일, 관북대학(關北大學)²⁷⁾을 설립하고 자신은 의학원²⁸⁾ 원장을 맡았다.

自營을 폐지하고 청진에 의과대학을 가져올 목적으로 萬難을 돌파하고 먼저 관북대학 창립을 힘써 그 책임자로 진력하였고, 그 후 중앙 지시에 의하여 1946년 8월 21일 청진의학전문학교로 개편됨에 따라 그 교장으로 취임하였다(성주영, 청진의학대학 교원 이력서, 1948).

관북대학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교두보였다.²⁹⁾ 청진적십자병원 약제사로 이재민무료진료소 활동에 참여했던 지정옥(池楨郁)³⁰⁾과 양진홍도 관북대학 의학원 강사를 역임하였다.

4) 신의주

평북 신의주에서는 민족주의자 중심으로 8월 16일 신의주치안유지회, 26

24) 성주영은 1906년 충남 예산 빈농가 출신으로 경성제2보교과와 경성제대 의학부를 나와 경성 부림병원 외과장, 세브란스의전 강사, 충주도립병원장(醫官)을 거쳐 1942년 청진 포항동에 淸樂園이라는 웅장한 2층 건물을 매수하여 개업하였다.

25) 박동호는 1897년 함북 청진 출신 한의사로 『東西醫學要義』(도진우, 1923)를 교재로 1927년 道醫講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1934년 의생면허를 취득하여 청진 수남동에 수남의원을 개업하였다. 1945년 관북대학을 발기하고 1947년 종중 재산 정리를 위해 월남했다가 6.25로 귀향하지 못하고 장남은 간첩으로 몰려 고문사하였다. 동서의학 결합과 민족의학을 주장하는 『增補 東西醫學要義』(도진우, 1975)을 편찬하였다.

26) 서창제(1889-1971)는 함북 명천 출신으로 1920년 영생중학교 졸업 후 普信중학과 東興중학교 교원을 거쳐, 1932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45년 관북대학에서 국어학을 강의하였고 1947년 월남 후 한양대, 서울대에서 국어학을 가르쳤다.

27) 고려 철종이 설치한 鐵嶺關의 북쪽을 뜻하는 ‘관북’은 함경도를 일컫는 별칭이다.

28) 교육기관의 명칭은 관북 의전원(성주영), 관북대학 기성회 의학원(양진홍), 관북대학 의학원(지정옥) 등 서로 다르게 기록하였는데 관북대학 의학원으로 통일하였다

29) 관북대학 의학원은 1년 후 의학전문학교, 다시 2년 후 의과대학으로 발전하였다. 그동안 성주영은 청진중앙병원장, 청진인민위원회 집행위원, 함북보건연맹위원장, 적십자 함북도지부위원을 겸임하였다.

30) 지정옥은 1920년 함북 나남 빈농가 출신으로 경성고보와 봉천 만주의대 약전 졸업 후 1942년 경성제대 부속병원 및 1944년 청진적십자병원 약제사로 근무하였다.

일 평안북도자치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그 구성은 위원장 이유필, 부위원장 백용구(白容龜), 문교부장 함석헌(咸錫憲), 보건부장 리성숙(李聖熟)³¹⁾ 등이었다. 11월 23일 신의주학생사건으로 이유필 위원장은 사임하고 함석헌 문교부장이 투옥되면서 민족진영은 몰락하고 공산당 평북도당은 전면 개편되었다(김용복, 1898: 212-3). 해방 전 신의주도립의원 안과장이었던 김병무(金炳武)³²⁾는 해방 후 부원장으로 피난민 수용과 방역사업에 주력하였다. 그가 ‘검하여 이행한 직책’은 신의주시재판소 참심원(參審員)³³⁾과 관서의학원(關西醫學院) 교수였다.³⁴⁾ 관서의학원은 청진의 관북대학 의학과와 유사한 성격의 의학교육기관으로 추정된다. .

이상과 같이 해방직후 북한에서는 지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의학교육이 전개되었다. 평양과 함흥에서는 도(道)인민위원회가 기존의 의학전문학교를 접수·운영하였으며, 청진과 신의주에서는 지역 유지(有志) 중심으로 소규모 의학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도(道) 인민위원회의 좌우익 구성과 조직의 성격에 따라 의학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원활하기도 하고 난항을 겪기도 하였다. 1946년 들어 중앙주권기관이 결성되고 교육행정이 중앙집권화되기 시작하면서 지방의 자치적 의학교육은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3. 중앙주권기관의 교육행정과 의학교육의 재편

1945년 11월, 각 도(道) 인민위원회 간의 연계를 보장하고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기관으로 5도행정국이 구성되었다. 행정국은 10개 국으

31) 리성숙은 1914년 평북 용천 출신으로 1935년 경성의전 졸업 후 피부와 강사를 거쳐 신의주에서 개업한다. 1946년 이후 북조선인민위 보건국 부국장, 북조선적십자사 창립위원장, 김일성대학 교원 등을 역임한다(리성숙, 평양의학대학 교원이력서, 1948).

32) 김병무는 1914년 평북 의주 부농가 출신으로 신의주공립고보 재학 시 독서회에서 사회과학에 몰두하였으나 부친의 종용으로 평양의전에 입학, 1937년 졸업 후 도립평양의원, 경성적십자사 조선본부병원, 평양기흉병원에 근무하였다.

33) 참심원은 독일식 제도인 參審制에서 전문적 법관과 함께 법원의 합의체를 구성하여 소송을 심판하며, 선거 또는 추천에 의해 선출된다.

34) 교수 재직 기간은 '1945. 11. 5~1946. 10. 10'였다(김병무, 평양의학대학 교원이력서, 1948).

로 편성되었는데 교육국장 정중식(평남인민위 교육위원), 보건국장 윤기녕(尹基寧)³⁵⁾, 산업국장 한동찬(韓東燦)³⁶⁾ 등 주로 평양 및 평남인민위 인물 위주로 구성되었다.³⁷⁾ 행정국은 사실상 ‘평남인민위를 모태로 여타 도(道) 위원회를 느슨하게 지도하는 상태’였다(김주환, 1989: 261).

1946년 2월에 결성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이하 북임인위)는 ‘해방 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출현한 각 지방인민위원회들의 정치발전의 결과’에 기반하여 세워진 북한 최초의 실질적 중앙주권기관이었다(김남식, 1988: 22-3). 구성은 산업국장을 제외하면 5도 행정국과 동일하였다. 북임인위는 식민잔재 청산과 민주개혁을 주도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토지개혁(3월), 노동법령 공포(6월),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공포(7월), 중요 산업의 국유화(8월), 지방인민위 선거(11월), 사회보장법 공포(12월) 등 이었다(김용복, 1989: 220-1; 김주환, 1989: 304).

토지개혁은 식민잔재의 물적 토대를 청산하였다. 빈농은 대부분 중농이 되고 지주계급은 소멸하는 등 북한사회의 계급구조와 경제구조의 틀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인민의 호응과 지지가 확대되었다. 토지개혁으로 노동자, 농민, 사무원 자녀의 교육 기회가 크게 늘어나고³⁸⁾ 사학(私學)이 청산되었으며 교육의 국가 관리가 확립되었다(박혜숙, 2011: 38-9, 45). 1946년 가을, 풍년으로 수확량이 늘어난 농민들은 첫 소출을 애국미(愛國米)로 헌납하고 학교신 증축사업에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이항규·김기석, 1999: 28-9).

1) 교육행정

최초의 중앙 교육행정기구인 교육국은 직원이 18명에 불과할 정도로 빈약

35) 윤기녕은 1903년 경성 출신으로 사립협성보통학교, 양정고보를 나와 1922년 경성약전, 1928년 경성의전을 졸업하고 1936년 평양에서 개업하였다.

36) 한동찬은 1883년 평북 평양 출신으로 1914년 동경치전 졸업 후 평양에 개업, 1920년 평양치과의사회를 창립한 평양 실업계의 중진이었으며 1946년 10월 월남하였다.

37) 예외적으로 함흥의 이봉수(함남인민위 재무국장)가 재무국장이 되었다.

38) 일제 시기 조선인의 교육 기회는 극히 적었다. 1944년 조선인의 86%(여성의 96%)가 無學이었고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조선인은 1% 미만이었다(이항규, 2006: 8)

했으나(신효숙, 2003: 95), 지방의 도(道) 인민위원회에는 기존의 교육담당부서가 있고 자체 예산도 있었다. 지방인민위가 먼저 조직되고 그 이후에 중앙행정기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약한 초기에는 교육행정에 일정기간 지방분권적 상황이 두드러졌다(김지수, 2010: 16).

강원도 같은 데 있어서는 여하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 3개월 동안이나 일체의 연락을 끊고 지시, 조회, 의뢰 등에 대한 전보 또는 문서 등의 회답이 전혀 없었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함경북도에도 있어서도 마치 한가지의 태도를 취하였다.

물론 이 사실을 지방할거적 옳지 못한 사상으로 연유한 현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원인을 불문하고 중앙과의 연락을 끊고 중앙의 요청에 응답이 없었다는 것은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적 태도가 아님은 물론, 결과로 보아서는 자유주의적, 태만적 태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장종식, 1992: 403).

이러한 지방분권적 경향은, 학교증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교육재정이 지방인민위 자체적으로 운용되고 있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표 1은 중앙행정기구 초기의 예산 세출 현황을 교육과 보건부문 위주로 요약한 것으로, 당시 교육행정에서 지방과 중앙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지방조직의 연합체 성격인 5도행정국 시기의 세출 예산은 지방(道)의 비중이 62%로 중앙(38%)에 비해 월등히 크며, 예산 전체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방이 8%로 중앙(4%)보다 높고 액수도 4배 많았다. 그러나 북임인위 출범 이후에는 중앙의 비중이 67%로 지방(33%)을 크게 능가하였다. 이는 ‘초기 좌우합작에 기반을 두었던 지방분권적 교육행정체제가 이후에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로 변화’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김지수, 2010: 14).

예산 전체에서 교육비의 비중은 5도행정국 시기에 5%였으나 북임인위 시기에는 17%로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중앙 예산에서 교육비 비중은 무려 19%를 차지했다. 이 시기에 교육국은 학교증설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대학을 설립하는데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투자하고

있었다(이항규·김기석, 1999: 28-9).³⁹⁾

표 1. 1945년~1946년 북한 세출 예산
Fig 1. Budget for annual expenditure, North Korea, 1945~1946

		(단위: 천원)						
		과목	중앙	%	지방(道)	%	중앙+지방	%
5도행정국 (45.11 ~46.3)	교육비		3,800	4	11,478	8	15,278	5
	보건후생비		11,896	8	11,806	4
	총계		89,525	100(38)	147,126	100(62)	236,561	100(100)
북임인위 (46.4 ~46.12)	과목							
	교육비		118,557	19	39,540	13	158,097	17
	보건후생비		41,178	7	14,252	5	55,430	6
	총계		253,060	100(67)	224,292	100(33)	928,756	100(100)

(전현수, 2007: 186,191)

2) 대학의 설립

일제 시기 조선 유일의 대학은 경성제국대학이었기에 북한에는 대학이 없었다. 1946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대학 설립 계획이 구체화되었다.⁴⁰⁾

7월 8일, 북임인위는 고등의학기술자, 즉 의사, 치과의사 및 약제사 양성에 대한 방침을 발표하였는데, 그 요지는 지방(道) 인민위가 운영해 오던 자치적 의학교육기관 중 일부는 대학으로 승격하고 일부는 폐쇄하는 것이었다.

먼저 평양의전과 함흥의전은 1946년 9월 새 학년부터 대학으로 승격시키고 수업 연한은 5년으로 하였다. 신입생 정원은 평양의학대학(이하 평양의대) 80명, 함흥의과대학(이하 함흥의대) 160명으로 하였고, 평양의대에는 각각 정원 40명의 치과의학과와 약학과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평남과 함남인민위는 학생 수에 따라 기숙사 및 식당을 설치할 책임을 맡았다. 다음, 평북 및 함

39) 1946년 교육국의 예산 지출내역은 평양의전 1,212,000원, 함흥의전 1,829,000원, 고등사범 학교(교원대학) 5,640,264원, 김일성대학 24,088,767원이었다(김지수, 2001: 94)

40) 북임인위는 7월 7-8일 의학대학, 교원대학, 종합대학 설립 계획을 동시다발적으로 발표하였다. 즉, 고등의학기술자 양성에 대한 건(북임인위 결정 32호, 1946.7.8.), 교원대학 설립에 관한 건(북임인위 결정 33호, 1946.7.7.), 북조선종합대학 창립에 관한 건(북임인위 결정 40호, 1946.7.8.), 이상 3건으로 각각의 내용은 서로 연관되면서 부분적으로 중첩, 상충되기도 하였다.

북도(道)인민위의 의학교육에 대해 북임임위가 결정한 방침은 아래와 같다.

어느 도 인민위원회(예 평북, 함북)에서는 교육국과의 협의 또는 교육국의 지시 없이 임의대로 自道에 의과대학 또는 기타 高等 正도의 학교를 설립하려고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하등의 보고 또는 허가 없이 재정모집과 기타 사업에 實地로 착수하고 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교육국과의 협의가 없이 各道에서 自道 내에 대학 또는 기술전문학교를 설립함을 금지함.

나. 평북과 함북 道인민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지시한다. 자기들이 조직한 현재의 의과대학 豫科는 폐쇄할 것이며, 其 학생들은 평양 또는 함흥의과대학⁴¹⁾과 기타 대학에서 공부하도록 조치할 것.

다. 평북 及 함북 道인민위원회에서 의과대학을 설립하려고 모집한 재정은 自道 내 학생 중 특별히 경제적 원조를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지급하여 북조선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도록 금전을 지불함을 許함(고등의학기술자 양성에 대한 건, 북임인위 결정 32호, 1946.7.8).

평북과 함북 道(道)인민위가 조직하였다는 ‘의과대학 예과’는 1945년 가을에 신의주와 청진에서 각각 설립되었던 관서의학원과 관북대학 의학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기관들을 폐쇄하고 학생들은 평양이나 함흥의대로 보내며, 그동안 확보해 둔 의과대학 설립 자금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라는 북임인위의 지시는 단호했다. 중앙의 행정력이 강력하지 않는 한 순순히 따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신의주의 김병무는 1946년 10월 10일 관서의학원 교수직을 마치고 이틀 뒤인 10월 12일 김일성대학 의학부 교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평북의 ‘의과대학 예과’, 즉 관서의학원은 그 즈음에 폐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함북의 관북대학 의학원은 폐쇄되기보다는 ‘중앙 지시에 의하여 1946년 8월 21일

41) 원문을 옮겨 적어 엮은 「북한관계사료집」 5, 590-1쪽에는 ‘咸北醫科大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咸興醫科大學’의 誤讀 또는 誤記로 본다

청진의학전문학교(이하 청진의전)로 개편',⁴²⁾ 성주영을 교장으로 하여 9월 1일 개교하였다.⁴³⁾ 양진홍, 허우혁, 김덕유 등이 교원(敎員)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청진의 의학교육은, 후술하는 교원대학 설립과 연동되어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다.

7월 7일, 북임인위는 '중등학교 교원을 시급히 양성할 목적으로' 평양과 청진에 각각 600명, 400명 정원의 교원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원대학은 2년 과정이지만 평양교원대학의 경우 2학년 학생을 240명 선발하여 1년 만에 졸업할 수 있게 하였을 정도로 중등교원 양성은 시급한 과제였다. 교육국은 교과목과 강령 작성, 물품 준비 책임을 맡았고, 평남과 함북인민위는 학생 기숙사와 식당 건물을 준비할 책임을 맡았다. 함북인민위에게 따로 내려진 지시가 한 가지 있었다.

함경북도인민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움. 현재 함경북도 處理下에 있는바 敎育기관에 使用하려고 한 特別 金額은 自道 敎원대학을 維持함에 使用할 것을 指示한다(敎원대학 設립에 관한 건, 북임인위 결정서 33호, 1946.7.7.).

...다른 목적에 사용하려고 진행 중인 특별 금액을 교원대학을 유지하는데 우선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원대학 설립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였다(박혜숙, 2011: 65).

결국, '의과대학을 설립하려고 모집한 재정'이 교원대학 운영비로 전용(轉

42) 본문 246쪽의 성주영 인용글 및 각주 29 참조

43) 북임인위의 강경 방침에도 불구하고 청진의학전문학교로 개편이 가능했던 것은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함북인민위의 강력한 의지와 의과대학 설립 자금을 다른 용도로 돌려 사용하려는 교육국의 의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타협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청진의전의 위상과 성격, 현황 등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북한은 1948년에 기술전문대학으로 6개 의학전문학교를 설립하였는데 그 중에는 청진의학전문학교도 포함되어 있었다(조선중앙연감, 1949: 131; 박윤제·박형우, 1998: 63에서 轉載). 1946년 8월에 설립된 청진의전이, 2년 후 1948년에 청진의과대학이 설립되면서 해산되었는지, 또는 전술한 6개 의학전문학교 중 하나로 이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用)된 것이다. 청진교원대학에 필요한 교원 및 기타 인력은 총 130명에 달했다(박혜숙, 2011: 66). 교원 양성의 시급성과 학교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미 평양과 함흥, 2곳이 확정된 의과대학을 추가하는 것보다 교원대학 설립에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려는 교육국의 결정은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청진의전 교원들은 청진교원대학 무급 강사를 겸임하였다. 청진교원대학은 10월 1일 함북인민위 위원장 박두환을 학장으로 개교하였다.⁴⁴⁾

한편, 이와 같이 의과대학 2곳과 교원대학 2곳의 설립이 확정된 상태에서, 북조선종합대학의 창설이라는 대형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평양의학대학은 진로를 선회하게 되었다.

3) 종합대학의 창설

종합대학을 창설하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일할 간부들을 동시에 양성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민족간부양성기지로 될 것이며 앞으로 내 올 대학들의 모체로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원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북조선에 있는 학자들을 다 모아 하며 그래도 모자라면 서울에 있는 선진적인 학자들을 데려 오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일성, 1979a: 384).

북한은 해방직후부터 종합대학 설립을 서둘러(김형찬, 1988: 34), 1945년 11월 초에 이미 기본 방침이 세워졌다. 1946년 5월에 북조선종합대학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⁴⁵⁾ 7월 8일에 주요 내용을 확정하였다.⁴⁶⁾ 설립 목적은 ‘진보적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인민의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며 지도하는 고등 기술자의 양성’이었다. 평양공전과 평양의전을 대학으로 승격시켜 종합대학의 모태로 삼고, 중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노동자·농민을 대상으로 정원 200

44) 8월 31일, 중등교원 출신 박송학(朴松鶴)이 학장으로 발령되었으나 10월 1일 박두환이 학장이 되면서 박송학은 부학장이 되었다(교직원채용내신서, 청진교원대학).

45) 위원장 장종식(교육국장), 위원 정두현(평양의전 교장), 신건희(평양공전 교장), 한설야, 한무, 이정우, 김달현, 이동화, 김택영

46) 북조선종합대학 창립에 관한 건, 북임입위 결정 40호, 1946.7.8.)

명의 3년제 예비과를 두었으며, 명칭은 김일성종합대학(이하 김대)으로 하였다. 평남인민위와 교육국에 업무를 부여하고,⁴⁷⁾ 산업국장, 교통국장, 보건국장, 상업국장, 농림국장에게 ‘일상적으로 교육국을 협조할 책임’을 지웠다.

김대 교수진의 핵심은 남에서 온 학자들이었다. 경성제대 출신, 유능한 학자, 진보적 정당의 당원, 남한의 ‘국대인’ 반대운동의 주역 교수 등, 30여명이 북임인위 위원장의 임명장을 받고 월북하여 과격적인 대우⁴⁸⁾를 받고 김대의 주역이 되었고 북한 학계를 대표하였다(신효숙, 2003: 103; 김기석, 2006: 65). 남한의 국립대와 북한의 김대 설립은 서로 맞물려 ‘한정된 소수 엘리트 확보를 경쟁하는 형국’이자 ‘고등교육의 분단’이었다(김기석, 1996: 53).

‘대다수가 유산계층의 학생들로 구성된 일제시기의 전문학교를 기초로 종합대학이 창설되었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에 신중을 기하였다’(신효숙, 2003: 161-2). 여학생 162명, 예비과와 부속 의학전문학교를 포함하여 신입생은 모두 2,003명이었다. 그 중 79%가 노동자, 농민, 사무원, 소상인 가정 출신이었고 출신성분 중 자본가는 87명, 지주는 71명 뿐 이었다.⁴⁹⁾ 김대(학장 김두봉)는 10월 1일 개교하였다. 김대 의학부(부장 정두현)에는 의학과, 구강의학과, 약학과를 두었다. 원래 평양의학대학에 치과의학과를 두기로 하였던 것이 김대 의학부가 되면서 구강의학과로 바뀌었다.⁵⁰⁾ 평양의전 교원 전부가 김대 의학부로 옮긴 것은 아니어서 평양의전 교원 52명 중 18명만 김대 의학

47) 평남인민위는 흥국공업학교, 창성상업학교, 평양사범학교, 인민재판소, 검찰소 등 5개 건물을 校舍로 이관, 1,200명 규모의 기숙사 건물 지정, 前 일본인 소유의 요리집·여관을 1,000명 규모의 식당 건물로 확보, 교사주택용 주택 50동 지정 등을 책임지게 하였고, 교육국은 校舍 수리 및 기숙사 시설 예산안 작성, 주요 보직 교수 名簿 작성과 부족한 교수의 초빙, 과학관·도서관·실험실 설치 등을 책임지게 하였다.

48) 月 보수는 1,500~2,500원으로 종래 월급의 5~6배에 달하였다(김기석, 2006: 73).

49) 학생들의 소속 단체는 노동당 460명, 천도교청우당 16명, 민주당 19명, 민주청년동맹 회원 747명, 무소속 771명이었다(기토비차·볼소프, 2006: 199-200).

50) 치과의학(dentistry)은 의학(medicine)과는 별개의 교육기관·면허·조직에 기반하는 전문직역 개념으로 19세기 후반 영미권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구강의학(stomatology)은 19세기 말 이탈리아, 프랑스, 헝가리 등에서 의학의 한 分科로 정립되었다. 소련은 1921년 치과진료를 국영화하고 1923년 구강의학체계를 채택하였다. 1947년 남한에서도 口腔科 改名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의사 측의 반대와 ‘구강’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는 이유로 퇴조하였다(조영수, 2004: 65-70).

부 교원이 되었다. 1946년에 월남한 11명을 제외하더라도 23명은 김대로 가지 못했다.

대학 설립 후 복임인위는 학제(學制)를 3개 교육체계로 확정하였다.⁵¹⁾ 보통교육체계는 인민학교(5년)·중급중학교(3년)·고급중학교(3년)로 하고 중학교에 야간학교를 두었고, 기술교육체계는 초급기술학교(3년)·전문학교(3년)로 하고 각각 야간학교를 병설하였으며, 고등교육체계는 교원대학(2년)·대학(4-5년)·연구원(3년)으로 하였다(이항규, 2006: 25-6).⁵²⁾

4. 의학교육체계의 정립

1946년 11월,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들은 북조선인민회의⁵³⁾를 구성하고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이하 북인위)를 수립하였다. 해방직후부터 교육행정을 총괄하던 장종식은 신설 간부국장이 되었고 교육국장은 한설야(韓雪野),⁵⁴⁾ 보건국장은 리동영(李東英)⁵⁵⁾으로 교체되었다.

북인위는 사회주의개혁의 기초를 쌓았다. 1947~8년에 각각 1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추진하여 1949년에 전체 공업의 91%, 상업부문의 57%가 사회주의적 형태를 띠게 되었다. 1947년도 예산 편성은 1946년 대비 세입 435%, 세출은 484%로 획기적으로 늘었다(전현수, 2007: 194-5).

1) 교육국·보건국

51) 북조선교육체계에 관한 규정, 북임인위 결정 133호. 1946.12.28.

52) 대학원과정에 해당하는 연구원은 1949년 말, 5개 고등교육기관(김대, 평양공대, 홍남공대, 평양의대, 원산농대)에 설치되었다(김형찬, 1988: 171).

53) 그들의 출신계급은 노동자 14.5%, 농민 36.4%, 사무원 30.6%로 이른바 근로계급이 80%를 상회하였다(이항규·김기식, 1999: 11).

54) 한설야는 1900년 함흥 중농가 출신으로 1923년 일본대학 문과 졸업 후 북천중 교원, 소설 비평 저술, 기자, 1934년 조선프로레타리아작가동맹 사건으로 투옥, 1945년 9월 함흥문화협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55) 리동영은 1894년 평남 평양 중농가 출신으로 3.1운동 관련 징역 1년, 1922년 경성의전 졸업 후 1929년 7월까지 김천도립병원에 醫官으로 근무하였다. 1933년 평양부 수옥리에 중앙의원을 개업하였고 1945년 11월 조선민주당에 입당하였다.

북인위 구성 후 중앙집권적 행정체계가 강화되었다. 교육국은 직원이 64명으로 확대되고 업무와 기구도 분화되어 실질적인 중앙행정기구로 자리잡았다. 교육국의 1947년도 주요사업은 학교 증설, 교과서 발행, 성인교육 및 직장교육 확대 등이었고 교원 재교육도 강조하였다(한설야, 1947: 392-9; 1947: 473-5). 고등교육 국가장학금제도를 제정하여 대학생 절반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사범대학·교원대학·사범전문학교에 통신강좌과정을 두었으며, 김대에 야간대학을 개설하고 기술전문대학도 설립하였다.

보건국도 직원이 66명으로 늘고 위생감독부, 모자보건부, 요양소·휴양소 감독부가 신설되었다(황상익·김수연, 2007: 48). 1947년 사업계획에서는 국가병원 확대 및 기존 국가병원의 개편⁵⁶⁾과 보건일군 양성·재교육에 보건국 예산의 27.3%를 투입하였다(리동영, 1992: 360-6). 1947년 5월 21일에 개최된 북인위 37차 회의의 주제는 ‘인민보건사업의 강화’였다. 먼저 보건국의 보건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지금 보건사업이 잘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 놓은 일은 얼마 없습니다... 위생문화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보건국장은 청소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의료일군들이 인민들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던 일 제시기... 의사들처럼 돈만 알고 인민들의 병을 잘 치료하여 주지 않는다면 인민들은 땅을 주고 삶의 보람을 안겨준 인민정권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사들 속에 자본주의 사회나 남조선에서처럼 닭이나 잡아 주어야 주사를 놓아주는 그림 사람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일성, 1979c: 282-3, 289).

이와 같이 비판은 다른 행정부서의 경우에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 1948년 3월의 북인위 62차 회의에서도 보건국 사업에 대해

56) 김대 의학부 부속병원을 북조선중앙인민병원으로 개편하고, 평양에 북조선특별병원을 설립하였으며, 함흥의대 부속병원, 신의주, 해주, 청진, 원산의 인민병원을 보건국 직속 모범병원으로 개편하였다.

‘반드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결함’이 지적되었다.

가장 주요한 결함은 규율과 질서가 없고 내부가 건전하지 못하며 일꾼들이 관료주의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의사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사상이 부족합니다. 일부 의사들은 규율이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며 환자들의 치료사업에 자기의 모든 기술과 지혜와 정성을 다 바치지 않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생명을 책임진 의사의 본분과는 어긋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은, 첫째로 그들에게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자유주의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던 낡은 습성이 남아있는데 있으며, 둘째로 보건국에서 의사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 하지 않는데 있습니다...(김일성, 1979e: 185-9).

보건국 사업은 낙제 수준이었다. 그 원인은 일제시기에 배출된 ‘과거의 의사들’의 자유주의적 생활태도, 그리고 보건국의 태만과 무능이었다. 그러나 그 의사들은 여전히 ‘선진 의학기술을 가진’ 소중한 인적 자원이었다. 국가는 ‘과거의 의사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생필품 배급에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주택 문제까지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다.

의사들에 대한 정치교양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속있게 하여 그들 속에서 발로(發露)되는 그릇된 사상경향을 철저히 없애며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생활조건을 잘 보장하여 주어야 합니다... 집도 좋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김일성, 1979c: 282-3, 289).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는 과정을 통하여 의사들이 많이 개변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돈만 알고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의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길로 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의사들이 뱉내는 것도 의사가 부족한 사정과 적지 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건국과 교육국에서는...민주주의 사상과 선진 의학기술로 튼튼

히 무장한 의료일군들을 최단기간 내에 많이 양성하여야 하겠습니까...

의사들에게 신발, 양복천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을 우선적으로 배급하여 주며 주택도 국가에서... 해결하여 주어야 합니다... 의사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개인 의사들도 국가병원이나 진료소들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김일성, 1979e: 185-9).

2) 업무 분장

북인위 37차 회의의 결과 중 핵심적인 것은 보건국·교육국의 업무 분장(分掌)을 명확히 한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은, 그동안 논란이 이어지고 있던 의학교육의 소관 부처 문제였다.

이 시기 일부 보건부문 일군들은, 의학교육사업은 보건일군들을 키워내는 사업인 만큼 그에 대한 지도는 교육국에서 떼내어 보건국에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홍순원, 1989: 433-4).

의사, 약제사들을 새로 양성하기 위한 학교교육은 교육국에서 책임지고 하여야 합니다. 일부 일군들은 보건국에서 의학부문교육을 다 맡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옳은 의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의학 계통의 교육이 기술교육이라고 하여 그것을 반드시 보건국에서 맡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의학부문 교육을 보건국에 넘길 수도 없습니다. 보건국에서는 이것저것 다 맡으려 할 것이 아니라 치료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를 일원화하여야 합니다. 의학부문 교육도 일반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국에서 지도하여야지 그것을 따르며 내어 보건국에서 지도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김일성, 1979c: 287).

이처럼 의학교육의 소관 부처가 교육국으로 결정된 배경과 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해방직후 지방행정조직이 자치적 의학교육을 시행할 때 교육부서

와 보건부서가 공조하였으나 주도적 역할은 교육부서에서 맡았다. 함흥의 경우 보건국장 최명학은 함흥의전 학장으로서 지도적 인물이었으나 실무를 총괄한 것은 교육부장이었다. 평양에서는 평남건준 결성 후 교육부장이 각급 학교 인수를 준비했다. 평양의전의 관리는, 동창회가 나섰을 때 원활치 못했으나 평남인민정치위가 나서자 정상화되었다. 당시 교육위원 장종식은 평남인민위, 5도행정국, 북임인위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를 일관(一貫)하여 북한의 교육행정을 이끌었다.

해방직후 좌우합작의 시기에, 소련군 진주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이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공산주의 진영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함흥과 평양이 그랬듯이 각급행정기구가 결성되면 거의 예외 없이 보건부서는 민족주의 진영, 교육부서는 공산주의 진영의 몫이었다. 식민 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주의 교육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길러내야 할 교육부서에는 정치사상적으로 확실하고 유능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 배치되었다.

둘째,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보건국의 사업 작풍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작용하였다. 해방 후 5도행정국, 북임인위, 북인위에 이르기까지 중앙행정기관의 보건국장은 평양의 개업의사 출신이었다. 그들은 모두 조선민주당 소속이었고 출신성분은 중농 또는 상업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교육국의 중앙교육관료들은 항일운동 경력이 있거나 최소한 친일 경력이 없는 젊은 인물들이었다. 중요한 선발기준은 사상성과 출신성분이었으며 사회주의 운동 경력자, 노동자, 농민 출신이 많았다. 소속정당은 대부분 노동당이었으며 민주당이나 기독교인은 없었다(김지수, 2010: 32-4). '민주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의과대학 교과과정에 정치경제학, 유물론, 공산주의이론 등 교양과목을 강화한 것⁵⁷⁾도 교육국의 방침과 감독에 따른 것이었다.

향후 핵심적인 보건일군이 될 '새로운 의사의 양성'은 교육국으로 일원화하였고, 그 이외의 모든 경우는 보건국 소관으로 하였다. 즉, 의사 및 약제사를

57) 교원 전체 중 의약학 전공이 아닌 교양과목 담당 교원의 비율은 함흥의대 22%, 평양의대 12%, 청진의대 14%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교육하는 단기강습소의 설립과 운영, 국가병원 및 개인병원 의사들의 의학 지식을 높이기 위한 단기강습 조직, 동의사(東醫師)들에 대한 재교육사업, 수 의사 양성사업 등은 보건국으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중등보건일군과 의료보조일군의 양성, 즉 의학전문학교 및 야간의학강습소⁵⁸⁾의 설립과 운영, 간호원을 양성하는 간호원학교⁵⁹⁾의 조직과 운영 사업도 보건국 소관으로 하였다. 병원관리체계는 보건국으로 일원화하였다. 초기에 노동국이 관할하던 사회보험병원을 보건국으로 넘기고 노동국은 사회보험비 지출, 사회보험병원 지정 및 그에 대한 검열과 지도만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국과 보건국의 업무 분장을 '원형'으로 하는 의학교육체계는 그 기본 골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⁶⁰⁾

고등교육에 관한 중앙지도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국 내에 고등교육원을 설치하고 원장은 교육국 부국장이 겸임케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후인 1948년 10월에는 내각명령 109호로 국가학위수여위원회(위원장 김두봉)가 조직되었다. 학위제(박사, 학사)와 학직제(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병행하였고, 논문 심사 없이 박사 5명과 학사 7명에게 학위를 수여하였다. 평양의대 장기려와 함흥의대 최명학은 국가로부터 박사학위를 받는 최고의 영예를 누렸다. 그 후 1950년 말 장기려는 월남하였고 최명학은 북한 의학부문을 대표하는 인물로 부각되었다.⁶¹⁾

58) 켈셀(助醫師) 시험을 준비하는 獨學者에게 의학 수업의 길을 주기 위해 보건국 승인으로 각 道 및 특별시인민위에서 설립·운영하며 강습연한은 1년, 수업료는 무료이다(야간의학강습소규정, 보건국 명령 제15호, 1947.8.23).

59) 보건국, 道 및 특별시인민위가 국가병원에 부설하며 2년제, 졸업 후 지정 보건기관에 2년 이상 복무하도록 하였다(간호원학교 규정, 보건국 명령 제17호, 1947.9.8).

60) 현재 북한의 고등의학교육행정체계는 교육위원회, 보건성, 인민무력부로 구분되어 있다.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부는 각 道(道) 의과대학을 관장하고, 보건성 대학지도국은 의사재교육대학, 의학단과대학, 의학전문학교, 의학대학 야간·통신·특설학부, 간호원학교를 관장하며, 인민무력부 군의국은 군의대학을 관장한다. 단, 평양의학대학은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부와 보건성의 '평양의학대학 지도처'에서 같이 관장하도록 하였다(문옥륜, 2001: 59-60).

61) 1952년 과학원이 창립되면서 최명학은 의학 분야의 유일한 과학원사로 임명되었고 농학 및 의학부문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국민보』, 1952년 12월 17일).

3) 새로운 보건일군

1948년이 되었어도 의사 인력은 여전히 절대 부족했다. 해방 후 월남 행렬에는 의사 뿐 아니라 의사 후보생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방 당시 평양의전 재학생은 ‘대다수가 유산계층의 학생들’이었다(신호숙, 2003: 161). 1945년 9월에 졸업한 평양의전 14기 30명 중 15명이 월남했으며, 1947년 3월에 졸업한 평양의전 15기 22명 중에서는 12명이 월남했다(박형우, 2002: 87-8). 김대의학부와 함흥의대에서 아직 ‘새로운 의사’는 배출되지 않았다.

1948년 2월 6일,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 회의는 1947년 사업을 결산하고 1948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였다. 북임위 위원장 김일성은 보건국의 보건일군 700명 이상 양성 계획과 교육국의 학교증설사업에 대해 보고하면서 청진의과대학(이하 청진의대)을 설립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김일성, 1979c: 95-7). 7월에는 ‘북조선고등교육사업 개선에 관한 결정’에 의해 김대에서 의학부는 따로 떨어져 나와 다시 평양의학대학(이하 평양의대)이 되었다.⁶²⁾ 평양의대(학장 정두현)와 청진의대(학장 양진홍)는 1948년 9월 1일 개교하였다. 평양의대 입학 정원은 150명으로 의학과, 약학과, 위생학과를 두었고 청진의대 입학 정원은 80명이었다.

1948년 8월, 보건국 부국장 류기춘(柳基春)⁶³⁾은 해방 3년 동안 이룩한 성과 중 하나로 ‘보건일군의 양성’을 꼽았다. 보건국이 책임을 맡은 시험제 및 중등교육에 의해 새로운 보건일군이 처음 배출된 시점은 의과대학 졸업생에 비해 1년 앞선 것이었다.

62) 김대 공학부·의학부·농학부를 각각 평양공대·평양의대·사리원농대로 분리 독립시켜 총 4개 대학에 27학부를 설치하였다. 수업연한을 조정, 단축하여 김대, 공대, 의대는 4년(기계공학부와 의학부는 5년), 농대와 사범대는 3년(단, 수의축산학부는 4년)으로 하였다. 김대, 평양공대, 홍남공대에는 야간대학을 설립하였다.

63) 류기춘은 1906년 경기 양주 출신으로 1927년 제일고보를 나와 1930~1년 조선공산당 재건 준비위, 공청 야체이카 조직,街頭 야체이카 조직에 관여하고, 1934년 경성제대 의학부 졸업, 경북 안동에서 「코민테른 크립」 활동으로 1년 6월 징역 후 고향 양주에 개업하였다. 1948년 보건국 부국장을 역임하였고 1953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건성 副相 자격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공식방문단에 정부 대표로 참가하였다.

기형적 의학교육제도의 질곡 하에서 향학의 길을 얻지 못하던 보건일군들을 시험제로서 등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 의학 교육제도로써 다수 근로인민들의 아들과 딸들을 각 전문학교와 대학에서 인민적 보건간부로 교육시키고.... 問學의 길을 못 가졌던 현지의사를 재교육하여 중등보건간부로 되게 하며 시험제으로써 새로이 57명의 의사, 5명의 구강의사, 75명의 펠셀이 등용되어 각각 국가보건기관에서 복무하게 되었다(류기춘, 1992: 268-78).

‘새로운’ 의과대학 졸업생은 1949년에 처음 배출되었다. 함흥의대 1회 졸업생 21명은 6월에 졸업하였고, 평양의대 1회 졸업생 51명(여성 2명 포함)은 7월에 졸업하였다. 그들 중에는 1944년 평양의전에 입학했던 16기생이 포함되어 있었다.⁶⁴⁾ 그들은 평양의전, 김대 의학부, 평양의대 학생으로 5년 과정을 마쳤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의사가 되어 군(軍), 내무성, 치안대, 요양소 및 대학병원에 배치되었다(박형우, 2002: 89).

5. 맺음말

해방직후 북한 의학교육의 형성과정을 탐구한 본 연구는, 해방직후 지방에서 전개된 자치적 의학교육이 중앙주권기관 수립 후 중앙 교육행정에 의해 어떻게 수용되고 재편되었는지, 또한 의학교육의 체계화가 확립되는 과정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주목하였다.

일제시기에 배출된 의사들은 ‘자유주의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던, ‘과거의 의사들’이었다. 해방 후 북한의 의사 중 절반 이상이 월남했다. 북한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새로운 의사들을 시급히 양성해야 했다. 해방직후 북한 각 지방에는 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자치적 의학교육이 전개되었다. 1946년 중앙주권기관이 수립되고 민주개혁이 추진되면서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적 경향은 중앙집권적으로 강화되었고 의학교육기관은 새롭게

64) 평양의전 16기 조선인은 30명이었는데 해방 후 1/3은 학교를 떠났고 1/3은 월남하였기에 5년을 채워 졸업한 학생은 몇 명 되지 않았다(박형우, 2002: 88).

게 재편되어 일부는 대학으로 승격되고 일부는 폐쇄되었다.

북한은 일제 시기 배출된 의사들의 자유주의적 태도, 보건행정 및 사업의 관료주의적 작풍을 비판하고 정치교양사업을 통해 사상적 개변을 기하는 한편, 의사들의 생활상 편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국가의료의 구축을 꾀하였다. 1947년, 새로운 의사의 양성은 교육행정의 소관으로 하고 다른 보건일군의 양성과 재교육은 보건행정의 소관으로 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는 의학교육체계를 확립하였다.

이와 같이 해방직후 북한 의학교육의 형성과정에서 ‘국가’는 적극적 주체로서 중앙집권적 행정과 체계화를 확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의학교육의 현장에서 실제 교육을 담당했던 또 다른 주체인 교원(敎員)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그들이 식민지시기에 체득한 지식과 세대별 경험, 정치사회적 의식과 세계관 등이 해방직후 북한 의학교육의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탐구함으로써 북한 의학교육의 ‘원형’이 보다 선명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색인어: 의학교육, 북한, 교육행정

투고일: 2014. 6. 30 심사일: 2014. 7. 15 게재확정일: 2014. 8. 12

참고문헌 REFERENCES

〈자료〉

- 노획 북한 문서(Record Group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1941-).
- 김일성대학 교원이력서(2006 12/32.1).
 - 평양의학대학 교원이력서(2006 12/34, 2005 8/35).
 - 함흥의과대학 교원이력서(2006 12/40).
 - 청진교원대학 교원이력서(2005 12/31).
 - 청진의과대학 교원이력서(2005 8/31).
- 김일성, 「종합대학을 창설할 데 대하여: 교육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1945. 11. 3)」, 『김일성 저작집』1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9a).
- 김일성, 「1947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대하여: 북조선 도, 시, 군인민위원회대회에서 한 보고(1947.2.19)」, 『김일성 저작집』2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9b).
- 김일성,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북조선인민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한 결론(1947.5.21.)」, 『김일성 저작집』3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9c).
- 김일성, 「1947년 계획실행총화와 1948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대하여: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서 한 보고(1948.2.6.)」, 『김일성 저작집』4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9d).
- 김일성, 「보건위생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 북조선인민위원회 제62차 회의에서 한 결론(1948.3.19)」, 『김일성 저작집』4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9e).
- 류기춘,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에 실행에 있어서의 새 경험과 새 과업(一), 보건부문」, 『인민』, 3-3. 1948년 8월 25일; 재출판: 『북한관계사료집』 15 (국사편찬위원회, 1992).
- 리동영, 「1947년도 보건사업의 전망」, 『인민』 2-3, 1947년 4월 28일; 재출판: 『북한관계사료집』 13 (국사편찬위원회, 1992).
- 장종식, 「민주교육의 반성과 과업」, 『노동신문』 1947년 1월 7일; 재출판: 『북한관계사료집』 34 (국사편찬위원회, 2000).
- 한설야, 「1947년도 인민교육문화발전계획 실천에 관하여」, 『인민』, 2-4, 1947; 재출판: 『북한관계사료집』 13 (국사편찬위원회, 1992a).
- 한설야, 「국가교육의 전망」, 『인민』, 2-3, 1947; 재출판: 『북한관계사료집』 13 (국사편찬위원회, 1992b).

〈연구논저〉

- 기창덕, 『평양에서의 의학교육: 1890년에서 1945년까지』, 『의사학』 2-2, 1993.
- 기토비차 A.·볼소프 B., 『1946년 북조선의 가을』, 최학송 역 (서울: 글누림, 2006).
- 김광운, 『북한 권력구조의 형성과 간부 충원(1945.8~1947.3)』,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김기석, 『해방 후 분단국가교육체계의 형성 1945~1948: 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의 등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대논총』 53, 1996.
- 김기석, 『김일성종합대학 창설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김남식, 『해방 전후 북한 현대사의 재인식』. 김남식 외 편, 『해방전후사의 인식』5 (서울: 한길사, 1989).
- 김용복, 『해방 직후 북한 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김남식 외 편, 『해방전후사의 인식』5 (서울: 한길사, 1989).
- 김주환, 『해방 후 북한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 혁명』. 김남식 외 편, 『해방전후사의 인식』5 (서울: 한길사, 1989).
- 김지수, 『북한 교육 관료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김지수, 『해방 직후 교육 관료제의 성격 형성』, 『북한 교육 60년: 형성과 발전, 전망』 (과주: 교육과학사, 2010).
- 김택중, 『의사 전공취의 생애와 사상: 한국 근대성의 한 초상』,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김형찬, 『북한교육발달사』 (서울: 안백사, 1988).
- 문옥륜,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운영』 (서울: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2001).
- 박윤재, 『북한의료의 형성과 발전』, 여인석 외, 『한국의학사』 (서울: 영림카디널, 2012).
- 박윤재·박형우, 『북한의 의학교육제도 연구』, 『醫史學』 7-1, 1998.
- 박윤재·신규환, 『해방 이후 한국 현대의료의 형성』, 여인석 외, 『한국의학사』 (서울: 영림카디널, 2012).
- 박재형·김옥주·황상익, 『북한의 의학교육』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박형우, 『해방 직후 북한의 의학교육에 관한 연구: 평양의학대학을 중심으로』, 『남북한 보건의료』, 2002.
- 박형우·여인석, 『해부학자 최명학』, 『醫史學』 16-1, 2007.
- 박혜숙, 『사회주의 체제형성기 북한의 교원에 관한 연구, 1945-1950』,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북한 보건의료 백서』 (서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3).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서울: 교육과학사, 2003).

신효숙, 「북한 고등교육인력의 양성과 발전(1945~1960)」,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서울: 경인문화사, 2006).

이성봉,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형성과정과 특징」, 『통일문제연구』 2-2, 2009.

이향규, 「북한 사회주의 보통교육의 형성, 1945-1950」,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이향규, 「북한 사회주의 교육의 형성: 교육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서울: 경인문화사, 2006).

이향규·김기석, 『북한 사회주의 형성과 교육』(서울: 교육과학사, 1999).

전현수, 「해방 직후 북한의 국가예산(1945~1948)」, 『한국사학보』 28, 2007.

조영수, 「20세기 초반 미국의 치의학 교육 개혁과 구강과 운동」, 『大韓齒史醫史學會誌』 23-1, 2004.

지강유철, 『장기려 그 사람』(서울: 흥성사, 2007).

최제창, 『한미의학사 - 의사의 길 60년을 돌아보며』(서울: 영림카디널, 1996).

홍순원, 『조선보건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재간행: 서울: 청년세대, 1989)

황상익·김수연, 「해방 전후부터 정부 수립까지(1945년-1948년)의 북한의 보건의료」, 『醫史學』 16-1, 2007.

- Abstract -

Formation of Medical Education in North Korea : 1945-1948

HEO Yun-Jung* · CHO Young-Soo**

*Department of Social Medicine and Medical Humanities,
School of Medicine, Ajou University, Suwon, KOREA

**Baeksang Dental Clinic, Seoul, KOREA

This study focuses on the formation of medical education in North Korea from 1945 to 1948 in terms of the centralization of medical education, and on the process and significance of the systemization of medical education.

Doctors of the past trained under the Japanese colonial system lived and worked as liberalists. More than half of these doctors who were in North Korea defected to South Korea after the country was liberated. Thus the North Korean regime faced the urgent task of cultivating new doctors who would 'serve the state and people.'

Since the autumn of 1945, right after national liberation, Local People's Committees organized and implemented medical education autonomously.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 of North Korea, democratic reform was launched, leading to the centralized

* Corresponding Author: HEO Yun-Jung / Department of Social Medicine and Medical Humanities, School of Medicine, Ajou University, Suwon, KOREA
Address: 164 Worldcup-ro, Youngtong-gu, Suwon, 443-380, KOREA
Tel: 82-31-219-5089 / E-mail: yunjungheo@naver.com

Received: Jun. 30, 2014; Reviewed: Jul. 15, 2014; Accepted: Aug. 12, 2014

administration of education. Consequently, medical educational institutions were realigned, with some elevated to medical colleges and others shut down.

The North Korean state criticised the liberalistic attitude of doctors and the bureaucratic style of health administration, and tried to reform their political consciousness through political inculcation programs. The state also grant doctors living and housing privileges, which show its endeavor to build 'state medicine'. By 1947, a medical education system was established in which the education administration was put in charge of training new doctors while the health administration was put in charge of nurturing and retraining health workers.

In this way, the state was the principal agent that actively established a centralized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medical education in North Korea following national liberation. Another agent was deeply involved in this process - the faculty that was directly in charge of educating the new doctors. Studying the medical faculty remains another research task for the future. By exploring how the knowledge, generational experience, socio-political consciousness and world views adopted by these teachers during the colonial era were manifested in their pedagogy after national liberation will shed more light on the 'prototype' of North Korean medical education.

Keywords: Medical education, North Korea, Education administration